

연중 7주일<다해>화답송

시편 103(102), 1-2.3-4.8과 10.12-13(© 8ㄱ)

손상오 신부 작곡

느리게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

Fine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
2.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 고
3.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 며
4. 해 뜨는 데가 해 지는 데서 먼 것 처 럼

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 라
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
분노에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 네
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 네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
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 고
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 고
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듯

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 라
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
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도 네
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 네

D.C.